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韓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술에 취해 이자선(李子善)에게 주다

醉贈李子善(취증이자선)

장검을 끌러서 그대 주노니 長劒脫相贈(장일탈상증)
술잔이야 어이 족히 사양하리오. 酒巵安足辭(주치안족사)
사나이 그러마고 허락했으면 男兒然諾地(남아연낙지)
흰머리 되도록 변치 말아야. 頭白以爲期(두백이위기)

※장검을 끌러서- : 뜻 맞는 사람끼리 장검을 끌러 서로에게 주는 것을 말함. 이백(李白)의 '증역수재(贈易秀才)' 시에 "소년 시절 장검을 끌러 내서는, 던져주고 그 자리에서 이별하였지(少年解長劍, 投贈卽分離)"라 한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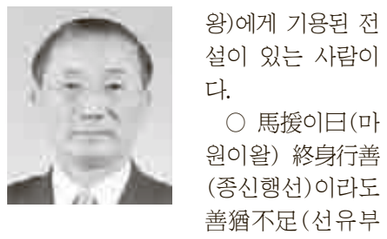
강어귀의 새벽 길

江口早行(강구조행)

기러기 한 울음에 강 달 가는데 雁鳴江月細(안명강월세)
갈대 숲 사이로 새벽 길 간다. 曉行蘆葦間(효행로위간)
말안장에 걸터앉아 아득한 꿈은 悠揚據鞍夢(유양거안몽)
어느새 고향집에 다다랐구나. 忽復到家山(홀복도가산)

明心寶鑑 해설

▣ 權 燁 彩 (본원 종사연구위원)



明心寶鑑은 날로 刻薄(각박)해지고 核家族化(핵가족화)하는 現時代(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지켜야 할 生活規範(생활규범)과 어른을 恭敬(공경)하는 法(법) 등을 詳細(상세)하게 가르치는 말씀들이며 예로부터 東方禮儀之國(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 우는 우리 民族(민족)에게 있어서 孝經(효경), 論語(논어)와 더불어 必讀書(필독서)로 連載(연재)함으로써 子女(자녀)들이나 孫子女(손자녀) 들의 敎育資料(교육자료)가 되어 名實相符(명실상부)한 名門家(명문가)의 子孫(자손)으로써 한층 더 品位(품위) 있는 人格人(인격인)들이 輩出(배출)되기를 비랍니다.

明心寶鑑(명심보감)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大文章(대문장)의 金言(금언)들이며 여기에 실린 金言(금언)들은 한 個人(개인)의 人間(인간)修鍊(수련)에서 始作(시작)하여 한 家庭(가정)을 圓滿(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며, 社會(사회)에 參與(참여)하여 國家(국가)를 다스리는 問題(문제)에 이르기까지 廣範圍(광범위)하게 그 原則論(원칙론)을 다룬 金書(금서)이기에 子女(자녀)들의 敎育(교육)指針書(지침서)로 利用(이용)되기를 懇切(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連載(연재)합니다. 그리고 子孫(자손)들에게 본 宗報(종보)를 한부씩 보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내 뿌리를 아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確信(확신)합니다.

1. 繼善編(계선편)

○ 子曰(자왈) 爲善者(위선자)는 天報之以福(천보지이복)하고 爲不善者(위불선자)는 天報之以禍(천보지이화)니라.

해설 : 孔子(공자)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려주시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을 주느니라" 고 하셨다.

참고: 공자는 (BC 552~479) 중국 춘추시대 魯(노)나라의 大學者(대학자) 政治家(정치가), 儒敎 (유교)의 아버지로 世界三大聖人(세계삼대성인)의 한사람이다. 이름은 丘(구), 字(자)는 仲尼(중니)이다.

莊子曰(장자왈) 一日不念善(일일불염선)이면 諸惡(제악)이 皆自起(개자기)니라.

해설 : 장자가 말하기를,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지 않으면 모든 악한 것이 저절로 일어나느니라.' 고 하셨다.

참고: 莊子(장자)는 BC365-290...중국 전국 時代(시대)의 송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周(주) 이다.

○ 太公이曰(태공 왈) 見善如渴(견선여갈)하고 聞惡如聾(문악여롱)하라

又曰(우왈) 善事(선사)란 須貪(수탐)하고 惡事(악사)란 莫樂(막락)하라.

해설 : 태공이 말하기를,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를 때 물을 본 듯이 주저하지 말며, 악한 것을 듣거든 귀머거리같이 하라" 또 말하기를 "착한 일이란 모름지기 탐내야 하며, 악한 일이란 즐겨하지 말라"고 하셨다.

참고: 太公(태공) ..중국 周(주)나라 초기의 賢者(현자)로 성은 姜(강), 이름은 呂尙(여상)이라 한다. 서기 1122년 지금의 중국 山東省(산동성) 태생이며 渭水(위수) 가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文王(문왕)에게 기용된 전설이 있는 사람이다.

○ 馬援이曰(마원이왈) 終身行善(종신행선)이라도 善猶不足(선유부족)이요

一日行惡(일일행악)이라도 惡自有餘(악자유여)니라.

해설 :마원이 말하기를, "한평생 착한 일을 행하여도 착한 것은 오히려 부족하고 단 하루를 악한 일을 행하여도 악은 스스로 남음이 있느니라." 고 하셨다.

참고: 馬援(마원) (BC 11~서기 49)...中國(중국) 後漢(후한) 사람으로 자는 文淵(문연)이며 光武帝(광무제)를 도와서 티베트족을 정벌하고 南方(남방)交趾(교지)의 반란을 평정, 胸奴(흉노) 토벌 등 많은 무공을 세웠다.

○ 司馬溫公 曰(사마온공이왈) 積金以遺子孫(적금이 유자손)이라도 未必子孫能盡守(미필자손이능진수)요,

積書以遺子孫(적서이유자손)이라도 未必子孫이能盡讀(미필자손이 능진독)이니 不如積陰德於冥冥之中(불여적음덕어 명명지중)하야 以爲子孫之計也(이위자손지계야)니라.

해설 :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돈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 하여도 자손이 반드시 다 지킨다고 볼 수 없으며,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 하여도 자손이 반드시 다 읽는다고 볼수 없으니, 남모르는 가운데 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한 계교를 하느니만 같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참고; 司馬溫公(사마온공); 1019~1086-중국 北宋(북송)의 정치가이며 학자이다. 이름은 光(광),자는 君實(군실), 시호는 文正公(문정공)이다.

(다음호에 계속)

■ 모범 종친회 순례 - 강릉종친회 편 ①

文鄕·禮鄕의 고장 江陵을 찾아서

△강릉시 교1동에 있는 강릉종친회관 전경이며 원내는 권오윤 회장.

강릉은 험준한 태백산맥과 동해바다를 끼고 있다보니 다른 지방과의 교류가 비교적 적었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붙박이가 많이 자연스레 인근지역내에서 혼인을 통해 사돈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또 집안간의 상호 연혼으로 지역사회 모두가 한집안 같은 혈연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는 특정인이 거론되면 그가 뉘댁 자식인지? 누구집 사위인지? 또 어느댁 며느리인지 금방 알게되어 자연히 더 배워야 되고, 더 예의범절을 갖추어야 하였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문화가 바탕이 되어 이율곡 선생과 신사임당과 같은 겨레의 스승이 탄생되었고, 교산 허균과 허난설헌 등을 비롯한 수많은 문장가와 향현을 배출하고 유학을 숭상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예로부터 文鄕·禮鄕으로 불리어 오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 속에 다른 어떤 성씨들보다 결속력이 높고, 화합하는 종친회로 명성높은 안동권씨 강릉종친회를 찾아 본다.

1. 安東權門의 江陵地域 世居來歷

현재 이곳 강릉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종인은 약 2,100여세대에 6,500여명으로 추정된다. 강릉의 안동권문은 대부분 추밀공파 평후공계와 복야공파 서주공계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강릉의 입향시기와 인구분포도 거의 비슷하여 선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강릉세거의 한줄기인 추밀공파의 강릉 낙향조는 시조 대사공의 19세손으로서 16세 평후공 衷(충)의 증손이며, 소요정 綸(륜)의 둘째 아드님이신 참봉공 悚(송)이시다. 관직은 음보로 정7품직인 무공랑으로 준원전 참봉을 지냈으나, 공의 누이가 연산군의 후궁인 숙의로 뽑혀 들어가자 왕의 외척이라는 혐의가 싫어서 벼슬을 버리고 당시 백씨 懼(구)가 부사로 재임하고 있는 강릉으로 내려와 강릉의 아름다운 산수에 매료되어 그대로 눌러 살게 됨으로서 그후 그 후손들이 강릉에 안동권씨의 일가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강릉으로의 낙향시기는 연산조였음이 분명하고 또 백씨의 강릉부사 재임시기를 상고해 보면 1490년대 후반으로 추측된다. 공의 손자 무진정 和(화)는 율곡 李珥(이이)선생의 이모부이고, 그 아들 오죽헌 處均(처균)은 율곡과 5년연하의 이종사촌간으로 두분 모두 오죽헌 고택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동고동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율곡선생의 생가로 유명한 강릉의 대표적 유적지인 烏竹軒(오죽헌)도 權處均(權처균)현조의 아호에서 비롯된 것이며, 무려 17代에 걸쳐 안동권문의 宗家(종가)로 이어오다 지금은 문화재관리청으로 이관되었다.

또 한줄기는 1470년대 성종조때 강릉으로 입향하신 것으로 알려진 복야공파 19세손으로서 서주공계 선교랑 義(의)의 증손이며, 판관 深(심)의 손자요 대사성공 悰(종)의 장자이신 현령공 迪(적)이시다.

공은 평해에서 태어나 그곳으로부터 이주하여 이른바 강릉 대사성공계의 입향조가 되었는데, 이는 조부(휘 深)께서 강릉 판관으로 계실 때 강릉의 산천이 아름답고 풍속이 순후함을 보고 강릉으로 이거할 뜻을 품고, 고향인 안동부에서 이주해 오다가 처향인 평해에서 잠깐 머문다는 것이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눌러 거주함이 2대에 걸쳤는데, 공께서 이러한 조부의 뜻을 받들어 강릉 玉街(옥가)에 터를 잡아 일가를 이루게 되었다. 그후 공의 아들 3형제 중 맏이인 보진당 士均(사균)이 중종반정이후 진사시에 장원하여 성균진사가 되었는데 조정이 어수선해 과업을 버리고 곧장 낙향하여 강릉향교 교수직에 머물면서 이곳에 명유와의 교류와 후진양성을 위한 강학처를 세우고, 당호를 葆眞堂(보진당)이라 명명하고, 자신의 아호로 삼았다. 지금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옥가문중의 구심체가 되고 있다.

2. 宗親會의 結成과 宗親會館의 建立

강릉종친회는 1977년 6월 16일 이 지역 안동권문들의 유대강화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문의 숭고한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강릉·명주화수회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시군통합으로 1988년 6월 24일 강릉종친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대회장으로는 강릉향교 전교로 계시면서 유학자로 덕망이 높으셨던 泰億(태억)옹을 옹립하였으며, 초창기 4대에 걸쳐 연임하시면서 종친회의 기반을 구축하셨다. 이어 五雄(오웅), 五喜(오희), 赫振(혁진), 寧嶽(영악), 赫民(혁민), 五實(오실), 寧奎(영규) 족친이 차례로 회장에 선임되어 숭조이념 확산에 노력하셨으며, 최근 10여 년간은 寧學(영학), 承鈺(승옥), 瑢植(용식), 泰卿(태경), 五萬(오만) 족친이 회장을 맡으면서 권문의 결속과 화합에 힘써 오셨고, 현 17대회장은 五潤(오윤) 족친이 맡고 있다. 五潤(복야공파 35세손)회장은 45여 년간 교직에 몸담아온 초등교장 출신으로 현재 강릉향교 전교로 있으면서 한국서화협회 초대작가와 한시협회 회원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종사의 종심인 강릉종친회관은 화수회 창립 2년후인 1979년, 당시 권문의 친목모임인 花心會(화심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종친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五實(오실) 족친을 비롯하여 世燦(세찬), 赫燦(혁찬) 족친 등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뜻있는 족친들을 찾아다니면서 기금을 희사받고, 일부는 상호간의 엇보증으로 농협에서 융자를 받는 방법 등으로 십시일반 어렵게 마련된 1억5천여만원을 투입하여 1983년 4월 10일에 비로소 종친회 소유의 아담한 종친회관을 건립, 준공하게 되었다. 종친회관은 강릉시 교1동에 자립잡고 있으며, 대지 360평에 연건평 377평의 4층 건물이다. 그동안 20여 년간은 종친회 직영으로 예식장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시대여건의 변화에 따라 2003년 11월부터는 1-3층은 식당 등으로 임대하고, 4층만 종친회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3. 江陵宗親會에서 力點的으로 推進하는 일

權五潤 회장(丘峯 75, 강릉, 복야공파 35세)은 강릉종친회 운영에 대해 선조유적지탐방, 보학강좌, 효자·효부선양을 위한 효행상 등을 통하여 숭조·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등산회, 서예교실의 운영과 산하 청장년회, 부녀회, 지파종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종인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강릉종친회에서 연례행사로 시행하고 있는 주요추진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사업명	시행주기	주요추진내용
①각종회의 운영 -정기총회 -운영위원회 -원로회원 간담회 -임원간담회	매년2월 분기별 연1회 초청수시	-예·결산, 임원선출 등 205여명 참석 -현안사항협의, 계파별 대표로 구성 -75세 이상회원 대상, 경로예우 차원 -회장·부회장·감사·사무국장
②선조유적지 탐방	연1회	-04년부터 시조묘역을 비롯한 권문유적지 및 사적지 탐방 -버스 2~4대 규모로 탐방단 구성
③전통의례 및 보학강좌개회	격년시행	-축문·홀기의 해설과 독축·창홀실연 -자체교재 발간, 강사위촉
④권문 등산회 운영	월2회	-족친간 친목·건강·향토문화 탐방 -06년부터 시행, 매회 26명 내외 참가
⑤권문가족 서예교실 운영	주1회	-회관 회의실 활용, 서예용품 비치 -자원봉사강사 위촉, 서예지도
⑥효행종인 표창	격년시행	-효자·효부·자랑스러운 종인 선발 -매회2~4명 표창, 격려
⑦근조기 비치	상시	-권문 상사시 종친회 근조기 설치 -비치수량 : 2조

강릉종친회 임원명단을 다음과 같다.(2012. 2월 21일 접수현황)

△회장 : 權五潤 △부회장 : 權五喆, 五綠, 五烈 △감사 : 瑢植, 純澈 △사무국장 : 赫允 △운영위원 : 權五吉 外 28名 연락처 : 033)646-6849 〈권혁윤 사무국장〉

■ 역사기행

근대사의 중심 대한제국 고종황제와 덕수궁

▣ 향촌 권 오 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고종(1852년~1919년)은 조선왕조 제26대왕이다. 그는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둘째아들이며 휘는 희이고 비는 여성 부원군 민치록의 딸 명성황후이다.

1863년 철종이 승하하자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10년간 대원군의 섭정 기간을 거쳐야만 하였다.

그는 대원군쇄국정치 소용돌이 속에 1876년 한일 수호조약 체결에 따라 문호가 개방되었고 개화사상의 만연과 일본의 질곡에서 1896년(고종 23년)아관파천을 거쳐 1897년(광무1년) 덕수궁으로 환궁(고종24년)하여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년호는 광무 국호는 대한제국이라 칭했다.

고종황제는 이제 대한제국의 위대한 건설의 꿈을 이룩하고저 세계만방에 고하였다. 밖으로는 자주주권국가이요 안으로는 개혁 정치를 추구하는 국리민복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원래 덕수궁은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경운궁 명례궁으로 불렀던 조선시대 행궁이였으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사저였다.

1593년(선조26년) 임란때에 선조대왕이 의주에서 환도하여 이를 수축하고 궁궐로 삼고 서궁이라고 하였다.

현재의 미국대사관저 건너편 서쪽에는 중명전을 비롯하여 황실전각들이 있었고 북쪽에는 역대 왕들을 제사지내는 선원전이 있었으며 동쪽에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환구단이 있었다.

고종황제가 1919년 승하하자 일제가 1920년부터 선원전과 증명전일대를 매각하여 궐내가 크게 줄었고 1933년에는 많은 전각들을 철거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였다.

이처럼 덕수궁은 일제의 손에 의하여 무참하게 훼손되었고 임란과 대한제국의 역사적 격변을 겪은 국난극복의 상징적 공간이 되었다.

이제 덕수궁의 궐내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궁의 정문은 남쪽으로 난 인화문이였으나 도시계획 등으로 여러 차례 변동되어 현재는 대한문으로 바뀌었고 이문은 대한제국의 영원한 창대를 염원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한문을 지나 건너게되는 금천교는 1986년에 발굴하였으며 이 다리를 건너 중화문앞에 이르는 궁궐의 중심차로이다.

이길을 따라 중화전에 닿는다 중화전은 정전으로 왕의즉위식 외국사절의 접견 등 중요한 의식을 행하던 곳이다.

중화전의 입구계단에는 답도에 용 두마리가 새겨져있다. 이는 황제를 상징하는 용을 조각한 것이다. 한가지 사례로는 중국북경 자금성의 천안문에서부터 들어가는 계단 황제 답도에는 꼭 용이 양각되어 있다.

아 애달프다 고종은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세계각국에 알리고져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 가지도 못하고 이준 열사는 그곳에서 순국하였다.

이 사건으로 고종은 일제에 의하여 양위를 강요 당하였으며 결국 고종은 순종에게 대리청정을 명하게 된다.

그러나 일제는 대리청정을 양위로 바꾸고 양위식을 1907년 7월19일 이곳 중화전에서 치른다. 고종과 순종은 양위식에 참석하지 아니 하였다. 중화전 후편에는 즉조당 일원의 건물공강이 배치되어 있는데 1902년 중화전을 건립하기 전까지 정전으로 사용된 건물이다. 직조당에는 고종이 쓴 편액이 걸려있다.

즉조당옆에는 석어당이 있는데 석어당은 선조의 계비인 인목왕후 김씨가 10여년간 감금생활을 한 곳이다. 이는 광해군이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형제들을 재거하고 인목대비를 이곳에 유폐했다.

이 사건이 인조반정의 계기가 된다. 인목대비는 석어당 앞마당에서 광해군을 꿇어 앉히고 36조목의 죄를 물은 후 능양군(인조)에게 옥쇄를 전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이달의 시

봄비 3

억센 상수리 여린 순이 돋습니다
저 비를 맞으면
내 몸에도 싹이 돋을까요

그럴 일 없겠지만
촉촉한 어느 눈길에 젖어, 다시
싹이 돋고 싶은 봄입니다

권경업 詩人
62才 안동·별장공파. 36世
(사)아름다운사람들代表